

오늘의 기사관

오늘의 기사관
(26일)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기인상 시상식은 오전 10시 광주일보 16층 회의실, 웹콘텐츠·모바일게임 업체 '인터세이브' 이갑형 대표 수상
▲기초자치단체장 초청 교육정책 간담회=오전 11시 광주시 교육청 상강실.
▲광주·전남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오전 10시30분 광주 무등파크호텔, 박동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실장, 이준행 전남대 교수가 '지역 혁신 역량 강화 방안', '지역 특화산업 진흥을 위한 혁신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광주·전남지역 장애인 정보활용 경진대회=오전 10시30분 전남체신청 전산교육관, 1차 예선을 거친 30명이 인터넷 정보검색과 워드문서 작성 분야에서 실력을 겨룸.

광주·전남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오전 10시30분 무등파크호텔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기인상 시상식
오전 10시 광주일보 16층 회의실
▲광주향교 충·효·예 체험캠프=오전 9시 광주시 남구 충·효·예 체험관.
▲육청동 임청 정원 준공식=오전 10시 순천시 육청동 임청 정원 현장. 소나무 20주·감나무 4주 및 야생화 11종 식재하고, 체육 시설 설치해 도심 휴식 공간(면적 1천548㎡)으로 조성.
▲'신노예생활'사례로 드러난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오전 3시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김희선(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팀장 등이 나서 전남지역을 비롯한 국내 정신지체장애인 인권실태 등에 대해 주제발표.
(27일)
▲FTTH(Fiber To The Home·덱내광가입자망) 서비스센터 개통식=오전 11시 광주 광동신연 구센터.
▲제 14회 광주여성대회=오전 2시 광주시청 대회의실. 김필식 동산대 이사장에게 무등여성대상 수여 및 김화중 전 보건복지장관이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강연.
▲21세기 담양포럼=오전 4시30분 담양군 문화회관 대공연장. 조연환 생명의 숲 공동대표(전 산림청장)가 강사로 나서 '나무의 마음, 숲의 노래'에 대해 강연.
▲제 27회 진도학당 군민교양 강좌=오전 2시 진도군청 대회의실. 방우정 전국이벤트MC 연합회장이 강사로 나서 '건강한 삶, 즐거운 인생·표현하는 삶은 즐겁다, 대강앞에 당당히 지는 밤'에 대해 강연.
▲제 72회 순천사랑 아카데미=오전 2시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방승인 오한숙씨씨가 나서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라는 주제로 강연.

공연
▲전통연희 한마당 공연=26일(수) 오후 1시30분 무안군 송담문화예술회관. '우리 전통 연희 한마당', '한국 춤으로 풀어가는 건강 기 충전'이라는 주제로 부채춤·사랑가·장고춤·한국 춤체조 등 공연.
▲목욕 열린 국악한마당=27일(목) 오후 7시 광주 빛고을국악전수관.
▲무안군립국악원 공연=27일(목) 오후 7시 무안군 불무공연.
▲어린이 연극학교=8월5일까지 민들레 소극장.
▲동양화 부채 전시회=28일까지 순천문화예술회관 1전시실.
▲국제판화워크숍=8월 9일까지 우체국미술관.
▲무진서각 전통각자전=8월10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대한민국 청년 미술제=26일까지 메트로갤러리.
▲의향 호남을 말한다 '미술로 만나는 악무호남전'=8월 9일까지 나인갤러리.
▲대지의 숨결전=8월10일까지 자미갤러리.

뉴스퀴즈
22. 제 43회 대중상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사상 최다 관객동원 기록(1천230만명)을 세운 이 영화가 7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 영화는 모두 1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고 최고 영예인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남우주연상·남우조연상·신인남우상·시나리오상·촬영상 등 7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무슨 영화일까요?
① 왕의 남자 ② 너는 내운명 ③ 파이소토리 ④ 한반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당첨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처변호비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쿠키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숨은그림찾기 < 31 >
지나주 정답
서클, 고추, 바늘, 펜촉, 갈매기, A자, 다리미, 초승달

공부하니까 남구랴?!
(찾아보세요) 펜촉, 열매, 종이비행기, 스피너, 못, 바늘, A자, 서클, 왕관

영어공부
공부를 지리도 못하는 한 아이에게 화가 난 엄마가 꾸짖을 했다.
"아니 너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제발 책상에 앉아서 공부 좀 해라!"
그러자 아들은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다.
"엄마, 엄마는 에디슨도 몰라? 에디슨은 공부는 못했어도 훌륭한 발명가가 됐어. 공부가 전부 아니잖아!"
그러자 더 열받은 엄마가 아들을 향해 소리쳤다.
"에디슨은 영어라도 할했지!"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들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고관지·하순용 화순읍 정우영·목포시 산정동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지역바둑대회
'반전을 위한 노림수' 3회전 제7보(117~143)
백 이상호 5단 <광주시청 A>
흑 김성호 5단 <능협>
종반에 접어들면서 백이 5단은 더욱 더 팽팽 날고 있다. 120에 고분고분 이지 않고 백 120에 급소를 가르치고 나와 김성호 5단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흑 117로 반발하고 119에 이었으나 그런 다음에도 급소의 효과는 남아 흑 점점을 살리려 한 수가 더 필요하다.
<참고도>
필필 날고 있다. 120에 고분고분 이지 않고 백 120에 급소를 가르치고 나와 김성호 5단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흑 117로 반발하고 119에 이었으나 그런 다음에도 급소의 효과는 남아 흑 점점을 살리려 한 수가 더 필요하다.

바둑소식
이창호 등 4명 농심배 태극마크
이창호, 최철한, 박영훈, 원성진이 지난 24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8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최종 예선에서 각각 이현욱과 최병훈, 진동규, 허영호를 꺾고 태극마크를 달았다.
농심 신라면배에 출전할 대표 선수는 모두 5명. 남은 한 자리는 후원사인 농심(주)이 와일드카드로 선정한다.
한·중·일 3국이 맞붙는 본선은 오는 9월12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우승상금은 1억5천만원이다. 한국은 원년부터 7회 대회까지 7연패를 달성했으나 지난해 최종국에서 한국팀 주장 이창호 9단이 일본 주장 요다 노리모토 9단에게 패해 우승컵을 내줬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자 이야기 <315>
降伏(항복)
항복할 항, 엎드릴 복
항(降)은 부(阜: 언덕) + 冫(아래를 향하고 있는 발의 왼쪽과 오른쪽을 그린 것으로 내려가다의 뜻)으로, 언덕을 내려감을 나타낸다. 복(伏)은 개가 주인 옆에 바짝 붙어 따라가는 모습에서, 몸과 머리를 땅에 엎드림을 의미한다.
항복(降伏)은 문자대로 해석하면 싸움에 져서 적 옆에 굴복하여 엎드리는 것이다. 이처럼 항복하다의 의미일 때는 '降'을 '향'으로 발음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용례는 '내리다'는 뜻의 강(降)으로 발음된다. 예를 들면 비가 내리다의 강우(強雨), 눈이 내리다의 강설(降雪)을 비롯하여, 신(神)을 지상에 모셔오는 강신(降神)이란 단어가, 신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다는 강림(降臨) 등이 있다.
매년 여름, 장마와 태풍(颱風)으로 한반도의 강우량(降雨量)을 갱신(更新)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에서는 강우량의 수치를 고쳐 써야만 했다. 지구촌 곳곳이 물난리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지럽힌 생태계의 회복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 시점에서는 자연과의 공존을 진심으로 원하는 겸허한 인간으로서의 항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굿모닝 잉글리쉬 <697>
This is totally our fault
이건 순전히 저희 잘못입니다
A: Will you recheck my bill once again? The telephone bill seems too high.
B: I'm terribly sorry. This is totally our fault. We will straighten it out right away.
A: Well, that's not good enough!
B: I'm sorry, Madam. I promise this will never happen again.
A: 다시 한번 제 계산서를 확인해 주실래요? 전화요금 청구서가 너무나 많이 나온 것 같아요.
B: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순전히 저희 잘못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겠습니다.
A: 그런 말은 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B: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약속드리죠, 이런 일은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recheck [ri : tek] vt. 다시 맞춰 보다, 재 대조하다.
That's no ~. 무익하다, 소용없다.
not ~ enough to do (구어) 할 가치가[자격이] 없는.
This is good ~. 이것으로 족하다

오하이오 니혼고 <697>
よろしく 言ってください
안부 전해 주십시오
A: もしもし。加藤さんはいらっしゃいますか。
B: はい。いまいませんがどなたですか。
A: 私は 韓国のイホンです。あした 國へ 歸(かえ)りますが、歸る前(まえ)に加藤(かとう)さんに會(あ)いたいです。
B: 主人(しゅじん)はきのう 旅行(りょこう)に行きました。
A: そうですか。それは 残念(ざんねん)です。は、よろしく 言ってください。
B: わかりました。どうぞ お元氣(げんき)で。
A: 여보세요. 카도우씨 계십니까
B: 지금 안계십니다. 누구십니까
A: 한국의 이혼입니다. 내일 귀국하는데 귀국하기전에 카도우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B: 남편은 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A: 그렇습니까. 그것 참 유감입니다. 그러면 안부 전해 주십시오.
B: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いらっしゃる : 가시다 오시다 계시다
残念(ざんねん)です : 유감스럽습니다. 애석합니다

니하오 쉰구워 <415>
早上在哪儿用餐呢?
아침에 어디서 식사하지요?
A: 早上在哪儿用餐呢?
Zǎoshang nǎ er chī fàn ne?
[지은일 짜기 얼 쉰일 네?]
B: 二番街西餐厅。
Èr fān jiē xī cān tīng。
[이러닝 데서 식사할 곳.]
A: 晚餐在哪儿呢?
Wǎncān nǎ er nǎ er?
[밤찬 어디서 식사할 곳.]
B: 早上7點到9點半。
Zǎoshang qī diǎn dào jiǔ diǎn bàn。
[지은일 짜기 얼 쉰일 네?]
A: 아침에 어디서 식사하지요?
B: 이혼의 영어영어학교.
A: 저녁 시간은요?
B: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입니다.
晚餐 [wǎncān, 식사할 곳]
西餐厅 [xīcāntīng] 양육당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교편연구원 ☎ 230-6505